

2015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8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15. 8. 21.(금), 14:00~18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이현혜, 성성열, 최성락, 박보현,  
강현숙, 김권구, 서동철, 한필원,  
(이상 8명)
  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1	홍천 물결리 삼층석탑 주변 발굴	공개
2	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	공개
3	서울 중구 소공로 103 일원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	공개
4	서울 종로 인사동길 ○○○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	공개
5	서천 종천지구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	공개
6	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-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(6공구) 보존방안 재심의	공개

## 【보고사항】

1	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	공개
2	2015년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	공개

## I. 심의사항

안건번호 매장2015-08-01

### 1.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주변 발굴

#### 가. 제안사항

홍천군이 추진하는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(보물 제545) 주변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(보물 제545호) 주변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사역 범위 및 가람 배치, 성격 등을 파악하여 정비, 복원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홍천군수
- (2) 발굴지역 :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8-4번지 일원
- (3) 발굴면적 : 1,332㎡(발굴)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30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강원고고문화연구원
  - 조사단장 : ○○○ (동 연구원 원장)
 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)

#### 라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 - 기 조사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 시굴조사 후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, 향후 조사 방향 검토
- 조건부가결 8명 / 출석 8명

## 2.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

### 가. 제안사항

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동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(경상문화재연구원) 결과 확인된 삼국시대~통일신라시대 분묘, 주거지, 수혈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
- 동 건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(경상남도)의 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인 (재)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굴하는 사항으로,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격성(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) 여부를 심의 하고자 함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 청 인 : 경남개발공사
- (2) 발굴 대상지역 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 46번지 일원
- (3) 발굴 대상면적 : 7,834㎡
- (4) 발굴기간 : 착수일로부터 45일
- (5) 발굴기관 : (재)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
  - 조사 단 장 : ○○○(동 센터장)
 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센터 조사연구원)

### 라. 추진경과

- 시굴조사(경상문화재연구원)
  - 기 간 : '15. 4. 15.~7. 17.
  - 결 과 : 삼국~통일신라시대 주거지, 건물지, 수혈, 고려~조선시대 분묘 등 확인
- 금번 발굴조사계획
  - 동 사업부지의 시굴 및 표본조사 결과 21,088㎡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여 A지구 일부분(13,254㎡)에 대해서는 (재)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, 나머지 (7,834㎡) 부분은 (재)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(⇒ 경남발전연구원은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됨)

**마. 사업시행자 의견(경남개발공사)**

- 조사기관 선정사유
  - 사업의 시급성(공사기간 대비 문화재 발굴조사기간이 30%)과 계속되는 민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고자 기존 시굴조사기관인 (재)경상문화재연구원을 1차 수습자로 선정하고, **이 일대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(재)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를 공동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였음**
- 선정방법
  - (재)경남발전연구원은 ‘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시·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 연구기관이며
  - 금번 문화재 발굴(조사)용역은 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 제9조(계약의 방법)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하목에 의거한 **수의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임**
- 발굴조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
  - 발굴현장 개방,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, 공동 조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등을 통하여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음

**바. 검토의견 : 발굴조사 상피제도 관련**

- 「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」(발굴제도과-8761 / '15.7.27 시행)
  -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판단(검토)기준  
(다음 ① ~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성 침해로 판단)

구 분	판단(검토) 기준	비 고
① 발굴조사계획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사계획서 구성 및 내용의 구체성, 객관성</li> <li>· 조사기간의 적절성 / 조사방법의 타당성</li> <li>· 조사절차의 적정성</li> </ul>	조사계획의 적합성 검토
② 이전의 공정성 침해 유사 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일 사업시행자 발주의 발굴조사와 관련 과거에 부실조사로 문책 받았거나 부실 조사로 인정된 사례</li> </ul>	부실 사례
③ <u>발굴조사 참여방식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의계약에 의해 조사기관이 선정된 경우</li> <li>· 사업규모/사업내용상 출자 조사기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</li> </ul>	조사 참여 방식

- 본 건의 경우 공동 수급방식이긴 하나 수의계약에 의해 조사기관을 선정함에 해당됨

사. 의결사항

- 부 결
  -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관련, 업무처리 지침 3적용(수의계약으로 조사기관 선정)
- 부 결 8명 / 출석 8명

### 3. 서울 중구 소공로 103 일원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

#### 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동 신축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6. 30.)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8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)에 따른 평가회의(2014. 6. 30.) 및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(제7차 회의 / 2015. 7. 24.) 결과에 따라 현지조사(2015. 7. 31.)를 실시하고,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

#### 다. 발굴조사 개요

- (1) 신청인 : (주)부영주택
- (2) 발굴장소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3 / 발굴(4,740m<sup>2</sup>)
- (3) 발굴기관 : (재)서울문화유산연구원
 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장)
 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)
- (4) 발굴기간 : 2015. 4. 27.~7. 7.(실조사일수 26일)
- (5) 조사결과
  - 대한제국의 대관정터 및 일제강점기의 경성부립도서관 건물터 등 근·현대 조적조 및 콘크리트 건물기초 확인

#### 라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6. 30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대관정터는 소공로와 함께 대한제국의 국가적·도시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, 발굴된 유적은 대한제국의 역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현재 발굴된 대관정터는 유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보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

#### 마.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(2015. 6. 30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평가 평점 : 90.6점

- 유구의 역사성과 희소성이 인정되므로 보존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

**바.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심의(2015. 7. 24.)**

○ 심의결과: “보류(현지조사 후 재검토)”

**사. 현지조사(2015. 7. 31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**

- 당해 발굴부지 인근의 환구단과 더불어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대관정 터의 기초부가 발굴되었음
- 대관정 터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해 대한제국 당시의 대관정 주변 경관이 크게 변화되었음
- 대관정 터 관련 유구의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된 보존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임

**아. 사업시행자 의견**

(1) 1안(공개공지 이전보존 +대관정 역사관 +발굴 원 위치 바닥기록)

- 발굴 원위치(신축 호텔 2층)에 바닥 패턴으로 대관정터의 흔적을 남기고, 인접한 공개공지에 발굴유적을 이전복원하고, 지하1층에 대관정 역사관 설치
  - 다중의 접근성 양호, 대관정의 역사와 실체를 공감 등

(2) 2안(건축물 내 원위치 이전보존)

- 발굴로 확인된 대관정의 건물기초를 원위치에(신축 호텔 내 2층)에 이전복원
  - 대관정 사진 및 역사기록 등 관련 자료 전시

**자. 관할 지자체 의견(서울시)**

- 대관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영빈관으로서 인근의 덕수궁(사적 제124호), 원구단(사적 제157호) 등과 더불어 대한제국의 역사를 온전히 품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므로 발굴로 확인된 대관정 유적은 원위치에 보존(이전복원)할 필요가 있음

**카. 검토 의견**

○ 보존조치 검토

보존조치	사업시행 여부	후속 조치	검토
이전보존 (+유적 홍보관)	사업시행	○이전 장소 지정 * 건축물 내 발굴 원위치 * 인근 공개공지 등	○대관정의 역사성·장소성, 다중의 접근성을 고려한 보존방안 필요
※ 현지보존	사업불허	○토지 매입 및 유적 정비 ○문화재 지정 등 ※ 매입비(3000억)+정비예산	○공·사익의 균형 고려 미흡 ○토지매입·정비 등 예산부담 ※토지보상 현실적으로 불가

타. 의결사항

- 보 류
  - 대관정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재검토
- 보 류 8명 / 출석 8명

#### 4. 서울 종로 인사동길 ○○○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

##### 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○○○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나. 제안사유

-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○○○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7. 31.) 및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8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)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(2015. 7. 31.)하고,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

##### 다. 발굴조사 개요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발굴장소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62-5 / 발굴(277.6㎡)
- (3) 발굴기관 : (재)한울문화재연구원
  - 조사 단 장 : ○○○ (동 연구원장)
 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 (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)
- (4) 발굴기간 : 2015. 6. 30.~7. 30.(실조사일수 11일)
- (5) 조사결과
  -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충훈부와 관련된 건물터가 확인됨
  - 건물터는 ‘ㄷ’자 형태의 장대석 기단 일부와 중정의 정료대 등으로 이루어짐

##### 라.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7. 31. / ○○○ , ○○○ , ○○○ )

- 조사지역은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충훈부 터로 알려져 있으며, 발굴결과 충훈부와 관련된 건물지가 확인되었음
- 충훈부와 관련된 건물지가 양호하게 발굴된 바, 유적에 대한 보존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

##### 마.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(2015. 7. 31. / ○○○ , ○○○ , ○○○ )

- 평가 평점 : 87.74점

- 조선시대 관아 터가 잘 남아있는 사례가 드물고, 충훈부 터에 있는 현재 건축물의 구조로 볼 때 비교적 지하유구의 잔존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며,
- 당해 발굴유적은 충훈부 터에 대한 첫 발굴 사례이므로, 보존을 검토하여 향후 가치판단의 준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

#### 바. 사업시행자 의견

- 당해 지역은 인사동 지구단위 심의 시 “지하1층·지상10층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, 건축 위원회 심의 시 인사동 지상 경관 규제로 인하여 “지하1층·지상6층”으로 건축이 제한된 상황임.
-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로 인한 추가 규제는 사업자에게 이중의 부담이 되는 고충이 있음
- 당해 사업부지에서 확인된 건물터는 ‘ㄷ’ 자 형태의 기단만 남아있는 상태이고, 주된 건물터는 연결한 종로순찰대의 지하건축으로 인해 파괴되어 원형을 복원할 수 없는 상태임
- 따라서, 발굴된 기단부재는 당해 신축 건물의 지하 공간에 보존하고, 신축 건물의 진입공간에 유적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역사적인 터의 의미를 남기고, 당초 설계된 지하 1층·지상 6층의 건축을 허용하여 주시기를 바랍

#### 사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 - 사업은 시행해도 무방하되, 유구에서 확인된 석재는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- 조건부가결 8명 / 출석 8명

## 5. 서천 종천지구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

### 가. 제안사항

서천 종천지구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(2015. 8. 4.) 및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8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)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(2015. 8. 4.)하고,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

### 다. 발굴조사 개요

- (1) 신청인 : 한국농어촌공사
- (2) 발굴장소 및 면적 :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신검리 10전 일원 / 발굴(17,338.6㎡)
- (3) 발굴기관 : (재)국강고고학연구소
  - 조사단장 : ○○○ (동 연구소장)
 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 (동 연구소 학예연구실장)
- (4) 발굴기간 : 2014. 3. 31.~2015. 8. 21.(예정)
- (5) 조사결과
  - 백제~조선시대에 걸치는 사찰 및 관련 건물지, 가마, 회곽묘, 수혈 등 총 140기 확인
  - 그 중 건물지 외곽에서 백제 토기·기와가마, 주조유구, 통일신라~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·도기·자기·숫가마 등의 생산유구 48기 확인
  - 사역 내에서 통일신라시대의 ‘운갑사(雲岬寺)’와 고려시대의 ‘개복사(開福寺)’ 명문와 출토

### 라. 전문가 검토회의

- (1) 1차(2014. 6. 13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  - 도로 하부에 이어지는 유구와 C지구 자기가마는 확장조사가 필요함
  - 보존필요성은 발굴조사 완료 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 백제시대 공방시설과 토기가마는 중요한 유구로 내부는 모래로 충전하고 그 상부는 뽕흙으로 1.5m 이상 복토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
  - 토기가마 등 백제시대 유구와 백제시대 탐지로 추정되는 판축대지 및 고려시대

유구가 중첩되어 확인됨. 백제시대 장식전이 공방유구에서 드물게 수습된 유적임

**(2) 2차(2014. 8. 25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**

- B·C지구의 추가 시굴 결과 유구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하층유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, 고려시대 박석유구는 B·C지구의 다른 하층유구 조사완료 후 검토가 필요함
- A지구 유구는 확장조사를 실시하고, 백제가마는 유실방지를 위해 긴급보호 조치(내부는 모래, 상부는 빨흙으로 보호조치 강구)가 필요함

**(3) 3차(2014. 10. 15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**

- 고려시대 개복사지 유적의 규모를 밝히기 위해 탐색트렌치를 넣어 고려말, 조선초의 상층유구를 일부 해체하고 하강하는 조사가 필요함
- 백제시대 A·B지구 유구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보존하여야 함. 특히 A지구는 도로 하층의 유구가 발굴될 때까지 복토하여 보호할 것

**(4) 4차(2014. 12. 5. / ○○○, ○○○)**

- 하층에서 확인된 통일신라 및 백제시대 유구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함
- 이 유적은 백제시대 사찰지 중에 지방에서 판축 탑지와 판축 금당지가 확인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현지에 보존하여 보호하여야 함
-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백제시대 지방 사지로 유구 및 유물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현지보존하고, 언론에 공개하여 문화재의 중요성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**(5) 5차(2015. 8. 4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**

- 검토 결과, 백제~조선시대의 사지 가능성이 높은 건물지 등이 확인됨
- 유구의 성격과 학술적 가치, 잔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구는 현지보존하고, 수위 변동에 따라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성토·보존할 것

**마.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(2015. 8. 4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**

- 평가 평점 : 88.28점 (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)
  - 본 유적은 출토유물과 유구의 가치 및 잔존상태를 고려하여 복토 보존이 요망됨
  - 저수지 수위의 변동에 따른 유구 훼손 방안을 고려해야 함

**바. 사업시행자 의견(한국농어촌공사)**

- 사업시행자(한국농어촌공사)는 서천 종천지구 농업용저수지 뚝높이기 사업부지 내 확인된 사찰 및 가마 유적 등이 학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.

- 보존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은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시행 예정
- 유적 보존방법
  - 홍수기와 갈수기의 수면 레벨 차이에서 오는 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복토층이 유수에 의해 노출·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**성토방법을 사용**하고자 함.
- 성토방향 : 성토 높이는 **2.2m로 유수를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성토 함**
  - 최하층부터 모래(0.7m) → 점토(0.5m이상) → 최상위의 암버릭(1m) 순으로 성토
- 보존(복토)구역 : 전체 조사면적 17,338.6㎡ 중 보존을 위한 **성토 11,970㎡ 계획**
  - A 지점 : 전체 2,674㎡ 중 성토 1,456㎡(A지점 동쪽지역 성토)
  - B 지점 : 전체 13,815㎡ 중 성토 9,664㎡(유구 확인지점 성토)
  - C 지점 : 전체 850㎡ 중 성토 850㎡

#### 사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 - 유구는 전문가 검토회의(5차, 2015. 8. 4.)결과대로 보조하되, 복토는 전문가 위촉해서 실시하고, 보호 층 설계 강화
- 조건부가결 8명 / 출석 8명

## 6.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-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(6공구) 보존방안 재심의

### 가. 제안사항

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-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(6공구) 보존방안에 대해 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(제7차 회의 / 2015. 7. 24.) 결과 “다른 보존방안을 제출받아 재검토(6공구)” 되도록 조건부가결 된 사항으로 유적 보존방안이 제출되어 재심의 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다. 발굴조사 개요

- (1) 신청인 : 한국도로공사
- (2) 발굴장소 :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~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
- (3) 발굴면적 : 6공구(발굴 13,187㎡)
- (4) 발굴기관 : (재)울산문화재연구원
  - 조사단장 : ○○○(동 연구원실장)
  - 책임조사원 : ○○○(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)
- (5) 발굴기간 : 2014. 5. 20.~현재 조사 진행 중
- (6) 조사결과
  - 통일신라 폐사지로 추정되며, 석탑의 부재, 금동불상 등이 출토됨
  - 유적의 중심연대는 통일신라시대(7~8세기)로 추정, 중북양상과 일부 고려시대의 유물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시대까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  - 금당지가 사역의 중심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, 석탑지가 주 사역과 떨어져서 위치하는 점에서 볼 때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평지가람 형식을 따르지 않음

### 라. 전문가 검토회의

- (1) 1차(2015. 3. 30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  - 통일신라시대·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사지로 다수의 유구·유물 확인되었음
  - 건물지가 북편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발굴 요망
  - 지표조사 결과 와당 등 유물이 수습된 A지점과 B지점 중 사업구간에 해당하는

구역에 대하여 발굴조사로 전환 요망(인근 발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함)

- 유적의 처리방안은 발굴이 종료된 후 조사된 유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

## (2) 2차(2015. 6. 29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전·후에까지 걸치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사찰 유적임
- 석탑재 등 석조 유물과 함께 경사지를 이용한 석축 기단 위에 조성된 건물지, 암·수막새 및 치미 등 다양한 유구, 유물 확인
- 경주-연양간의 직통로인 구조곡에 연결해 있으며, 출토유물의 다양함과 함께 석축 유구의 양호한 유존 상태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주요 교통로 상에서 그 기능이 주목되는 사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
- 유적의 입지, 확인된 유구의 상태, 출토유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저한 발굴조사와 함께 유적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최초조사(지표조사)의 부실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조치 요망됨

## 마.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(2015. 6. 29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평가점수 : 94.00점 (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)
  - 출토유구, 유구상태, 학술적 가치 등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됨
  - 신라와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사찰 유적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크며 정밀발굴조사를 통한 성격파악이 요구됨

## 바. 2015년 제7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(2015. 7. 24.)

- 심의 결과 : “다른 보존방안을 제출받아 재검토(6공구)”로 조건부 가결됨

## 사. 현지조사

### (1) 1차(2015. 7. 13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선형 변경, 교각 배제 등 유적보존을 위한 대안 제시 요망

### (2) 2차(2015. 7. 21. / ○○○, ○○○)

- 가천리사지는 동서향이 넓은 사역으로, 시기는 통일신라초기(7c.)와 후기(8·9c.), 고려시대, 려말선초기이며, 유구도 3~4시기의 중복성을 보임
- 특히 사역의 중앙에서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중심건물군은 바닥전을 사용하는 등 초기부터 유적이 있던 사역유적으로 추정됨
- 삼국말~통일기초의 영축사지, 통도사 등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주는 초기사원유적 이라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됨(교통상의 주요성 등)
- 삼국~통일기 주요 강당지에서 보이는 장방형구조 내에 이원식 배치를 보이는 구

조물(건물지1, 건물지2)이 확인되는데, 벽제 능사, 불국사 설법전, 안양사지 강당지 등에서 보이는 특이한 구조임

- 유적의 전모를 확인하고자 한다면, 유구가 중첩되어 있어 창건기와 통일신라사역을 노출시키는 하강작업이 필요함. 다만 이 사지의 유적보존문제를 선결정하여야 함

#### 아. 사업시행자 의견(한국도로공사)

##### ○ 유적상부 복토 원형보존 후 성토 및 중요유구 축소모형 이전복원

- 고속도로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은 현 설계 유지
-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적정 위치에 축소모형 전시
- 비상회차시설, 마을진입로의 선형 조정으로 절토로 인한 유구 훼손방지
-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3D스캔 기록보존, 유구 보호재 충전과 양질토사 복토,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

##### ○ 평면 설계노선 변경

- 설계 시 지자체(울산광역시, 양산시), 주변 사찰(통도사, 표충사), 지역주민, 주변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극심한 민원으로 노선 선정 협의기간 7년 이상 소요, 분양 중인 울산광역시 하이테크밸리 사업으로 인하여 노선 변경은 현실적불가능
- 평면선형 변경은 사업비 손실과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사업의 장기포류 예상

##### ○ 유적 하부 터널 설치

- 갱구가 장제마을과 근접 설치되므로 민원 우려, 도로 높이가 계곡부 홍수위보다 낮아 안전 문제발생
- 종단경사가 2.57%로 장대터널의 방재, 환기를 고려한 종단경사 기준(2.0%) 초과,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피해 우려

##### ○ 유적 상부에 현 설계 높이로 교량 설치

- 유적의 일부가 훼손, 교량 하부공간의 협소로 유적과 교량 관리 어려움
- 비상회차시설 설치필요(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3km 이상 장대터널의 시종점부)
- 비상회차시설 미설치 시 터널 내 비상사태 발생경우 긴급복구, 구조활동 등 초기 대응 지연으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

##### ○ 유적 상부에 현 설계 보다 높게 교량 설치

- 유적의 일부가 훼손
- 본선(L=5.6km)과 서울주JCT 구간의 종단선형 조정이 불가피, 교량 14개와 터널 1개의 재설계 필요
- 기투입 사업비(99억원), 매몰과 재설계비(18억원), 공사비(250억), 문화재 보호시설비(5억) 포함 국가재정 372억원 추가 소요
- 재설계 기간, 상북터널 굴착기간 등을 고려 시 2020년 준공 불가

자. 의결사항

- 보 류
  - 유구의 보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출 받아 재검토
- 보 류 8명 / 출석 8명

### Ⅲ. 보고사항

#### 1.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

##### 가. 보고사항

「문화재보호법」의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발굴조사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.

##### 나. 보고사유

- 국가 또는 시·도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에서 발굴조사 허가를 신청한 사항 중 조사기관 변경이 없는 연차발굴조사와 7일 이내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.

※ 2014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요청사항

##### 다. 유적목록

문화재명 (유적명)	지정현황	신청사유	조사기관	면적 (㎡)	조사 유형	조사 기간	허가 일
강화 미루지 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	시도기념물 제40호	배수체계 및 주변 정비사업	(재)한국고고인 류연구소	1,369	시굴	6	6. 8.

##### 라. 의결사항

- 원안접수
- 원안접수 8명 / 출석 8명

## 2. 2015년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

### 가. 보고사항

「문화재위원회 규정 및 운영 지침」에 따라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.

### 나. 보고사유

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 및 운영 지침」에 따라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 소위원회(2015. 8. 13.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.

### 다. 심의 결과(지표조사 : 3건, 발굴허가 : 7건)

연번	안 건 명	의결내용	비고
1	평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	○ 조건부가결 - 팔석정 관련 실시계획 검토 후 조치	
2	천안-청주공항 간 복선전철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	○ 원안가결 - 검토의견 대로 조치	
3	천안 태학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	○ 원안가결 - 검토의견 대로 조치	
4	서울 광진구 아차산성 남문지 및 배수구 발굴	○ 원안가결 - 발굴조사 허가	
5	인제 한계산성(상성) 발굴(시굴)	○ 조건부가결 - 발굴조사 허가(안전조치 철저히 하여 발굴실시)	
6	대전 계족산성 발굴(시굴)	○ 조건부가결 - 발굴조사 허가 - 발굴 진행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 회의 실시	
7	아산 신창 학성 발굴	○ 원안가결 - 발굴조사 허가	
8	부여 능산리 고분군(동고분군) 발굴	○ 조건부가결 - 시굴조사 후 전문가 검토 실시 하여, 추후 진행 방향 결정	
9	고창 분청사기요지(사적 제250호) 발굴	○ 원안가결 - 발굴조사 허가	
10	경주 동부 사적지대 발굴(시굴)	○ 보류 - 현지조사 후 재검토	

라. 의결사항

- 원안접수
- 원안접수 8명 / 출석 8명